

## 15. 언론기관 대응 요령 및 자살예방 교육

### [궁금해요]

#### ● 학습주제

- 1) 언론기관 대하기
- 2)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 3) 해외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교육
- 4) 국내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교육

#### ● 학습목표

- 1) 언론기관 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2)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한다.
- 3) 해외 및 국내의 학교중심 자살예방교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 [제대로 알기]

#### 1) 언론기관 대하기

##### ① 언론보도의 자살에 대한 영향

자살은 보도가치가 높으며 특히, 어린 학생의 자살사건은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매체가 자살을 다루는 방향에 따라 모방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예) 2008년 국내 유명연예인 자살 후 자살율의 급격한 증가  
이처럼 매체는 모방 자살과 자살예방 양쪽에 모두 영향을 준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 개인의 자살관련 이야기의 보도의 양이 증가할 때
  - 오랫동안 특정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보도될 때
  - 방송의 첫 부분에 자살에 의한 죽음 관련 이야기가 배치될 때
  - 자살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이 극적일 때
- 매체가 자살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 자살의 원인, 경고 징후, 자살률 동향, 최근 치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다룰 수 있지만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한다.
  - 대부분의 기자들 역시 옳은 일을 하기 원하고 자신의 보도 때문에 모방 자살이 촉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언론 관계자를 잘 교육하고 적

절한 기사정보나 방향을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살예방은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 ② 학교에서 언론기관 대하기

### • 상시관리

사전에 언론대응 담당자를 정하고 위기개입 시 언론기관에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내외 자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기자가 학교에 연락을 해왔을 때, 그때 담당자를 정하고 언론대응을 시작하려면 처리해야할 일이 많은데다가 무엇부터 할지 몰라 허둥대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언론대응 담당자는 언론에서 요청할 때 줄 수 있는 간단한 보도 자료의 틀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해둔 형식에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보도 자료의 사전준비는 사건발생 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담당자의 개인적인 사건이나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위기개입 상황이 발생 한 경우

-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위기관리위원회(또는 긴급교무회의)가 소집되고 자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대응범위가 결정되면 학교의 공식입장에 따라 보도 자료를 준비한다.
-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한다.

#### ① 전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전달

자살에 대해 인정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제공하되 죽음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예, 사망한 장소, 방법, 동기 등).

#### ②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공감을 표현한다.

#### ③ 자살의 위험요인이나 경고 신호를 알리는 정보,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학교의 사후개입 노력과 시행될 프로그램,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소개한다.

##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전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언론 관계자들은 자살의 방법이나 동기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며 이를 자극적으로 기사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살보도에 있어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살에 대한 확실한 동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살은 개인적 특성, 환경요인, 그리고 최근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취재를 통해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

로 자살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자칫하면 고인이 된 학생이나 유가족, 주변지인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이차 트라우마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살의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자살의 동기를 특정하는 것은 고인 주변의 관련된 학생이나 교사 뿐 아니라 학생 전체의 자살전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누구 때문에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은 학생들에게 자살의 특정 동기로 알려질 경우, 지목된 학생이나 취약한 학생들의 연쇄적인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설사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정서적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집단 내에서 낙인찍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집단 내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살방법이나 표면에 드러난 동기를 파헤치고 강조하는 위와 같은 보도스타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자살한 학생을 동정하거나 미화하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자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살행동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자살행동이 고통을 해결해준다거나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암시를 하면 안 되며 자살한 학생을 영웅시하거나 동정, 또는 미화하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군은 훌륭한 학생이었고 그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B양은 학교생활에 힘들게 적응해 왔으나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는 등의 언급으로 자살을 선택한 과정을 동정하거나 영웅시하는 표현은 주변학생들이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차라리 나도 존재감 없이 사느니 A군이나 B양 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게 나을지도 몰라”라든가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나를 무시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와 같은 방식으로 자살시도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쓰지 않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살 보도는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방송 앞부분 주요기사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신문 안쪽, 방송 후반에 배치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다. 학생 당사자나 슬퍼하는 가족, 교사, 급우의 사진을 이용하여 자살의 영향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한다.

- 포함하도록 권고할 내용

비슷한 경우에서 자살충동을 극복한 사례,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학교나 학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지침이나 이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자살예방활동 또는 사후개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외 학교에 대한 활동소개를 통해 슬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비치해두었다가 보도 자료와 같이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24시간 콜센터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자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함께 알려준다.

- 학교의 다른 교직원들은 위기개입 동안 언론의 인터뷰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뷰 요청 시 언론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대응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 ③ 학생으로서 언론기관 대하기

-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건 소식을 전할 때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가 접촉해 올 수 있음을 알리고 언론에 대응하는 법을 교육한다. 학생들 대부분이 갑자기 기자가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기습취재를 하는 것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은 소문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무심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자에게 말한 어떤 내용이든지 다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확실한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된 이야기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임을 명확히 알려준다.
- 학생에게 언론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기자를 접촉하지 말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언론담당 선생님의 이름과 학교 내 소속,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교육을 한다.
- 요약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고 언론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개별 인터뷰는 거절하도록 한다.

### ④ 학부모로서 언론기관 대하기

- 위기개입이 시작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위기개입활동에 대해 공지할 때 언론에 대한 대처요령을 함께 공지하는 것이 좋다.
- 학교로 기자들이 찾아오는 경우, 학부모 자치위원회나 학교지킴이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등하교시 학생들을 보호한다.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로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등하교길 지도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인터뷰하기 위해 교문 근처에서 배회하는 기자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다.
- 학부모 역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를 자제하고 특히 사건 관련된 소문이나 추측 등이 기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의 공식입장이나 공지사항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도록 한다.

## 2)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국내외에서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짐-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혼용하여 사용'

예방교육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구분

- ① 일반적 접근 방법(universal approach)
  - 대상: 모든 학생
  - 목적: 일반적인 예방 및 교육
  - 방법: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리큘럼기반교육이라고 불림
- ② 선별적 접근방법(selective approach)
  - 대상: 자살 위험도가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at-risk) 청소년
  - 목적: 대상자를 선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 방법: 선별검사 이용  
또래, 교사 및 교직원을 게이트키퍼로 교육하여 활용
- ③ 지정적 접근 방법(indicated approach)
  - 대상: 우울증 환자이거나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
  - 목적: 알려진 자살의 위험요인을 가진 고위험군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
  - 방법: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

※ 예방적 접근이 탁월하게 더 효과적이란 증거는 없음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 국외의 학교중심 예방 프로그램 대부분이 위의 접근방법들을 결합하여 활용

## 3) 해외의 학교 중심 자살예방교육의 소개(미국의 사례 중심)

- ① 커리큘럼 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접근방법
  - 학교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 일차 목표
    -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 위험요인, 보호요인, 자살의 징후와 같은 자살관련 요인에 대한 지식 전달
    - 학생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필요시 적절한 도움추구 행동을 하도록 교육
- 이차 목표
  - 자살 위험에 처한 학생을 또래들이 발견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이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와 같은 성인보다는 또래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더 잘 이야기한다는 조사연구에 의한 것
    - 또래 게이트키퍼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 교육이 개발
- 장점
  - 커리큘럼 기반 예방교육은 1회에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 시행하기 간편하다
  - 일차예방프로그램으로 널리 보급하여 활용하기 좋은 형태
- 단점
  - 지식을 전달하는 이러한 교육이 실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 확인하기 어려움
  - 1990년대 미국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자살위험요인을 증가시키고 일부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
    - 기존의 부정적 연구결과들에 대한 재해석과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교육 자체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도움추구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적절한 의뢰-연계체계 없이 단순히 자살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육은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커리큘럼 기반 교육
  - Signs of suicide(SOS)프로그램
  - South Elgin High School Suicide Prevention Plan(SEHS)
  - 이 프로그램들은 효과검증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SOS 프로그램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2일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 기반 교육
    - 우울증에 대한 자가 선별검사를 시행
    - 점수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것을 권유
    - 자살 뿐 아니라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함께 교육
    - 동영상교재 등을 이용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집중교육을 받음
    - 학생 스스로가 자신과 또래친구를 위한 게이트키퍼가 되는 훈련을 받음
    -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교육
    - 장점 : 커리큘럼 기반 예방교육과 선별,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등 기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예방 전략을 적절히 조합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평가하고 도움추구를 하도록 하며 또

래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 SEHS 프로그램
  - 일반학생 대상 커리큘럼 기반 교육
  - 자살에 대한 부정확한 생각이나 태도를 교정
  -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신건강문제, 즉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 교육
  -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도움추구의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는 교육
  -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위험도가 높은 학생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는 과정 포함

## ② 선별 프로그램 (Screening program)

- 대표적인 선별적 접근방법의 하나로 다수에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자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을 선별하여 도움을 받도록 의뢰하기 위한 목적
- 현재 미국의 학교에서 널리 시행되는 선별검사
  -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SIQ)
  - Suicide Risk Screen(SRS)
  - Columbia Suicide Screen(CSS)
  - 장점 : 부모나 교사에 의해 발견되지 못한 고위험군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음
  - 단점
    - 위양성 비율이 높아서 비용대비 효과가 낮음  
→ 많은 전문 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효과
    - 자살사고의 심각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한 시점에 측정된 결과가 자살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③ 게이트키퍼(gatekeeper) 프로그램

-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선별적 접근 방법 중 선별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 게이트키퍼란 :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쉽게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교직원 또는 또래 청소년
- 게이트 키퍼의 역할
  -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현장에서 발견
  - 이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술과 심각도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의뢰하는 것
  - 최근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고 있음
  - Question Persuade Refer(QPR)
  - ASSIST, safeTALK (Living Works)

- Suicide Options and Relief(SOAR)
-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Youth Suicide Prevention Plan(LAUSD)

**※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의 성공에서 중요한 것**

프로그램 자체보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는 학교나 교육행정 기관의 실행의지와 능력이 더 중요함  
LAUSD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성공적인 교육의 필수요건으로 탁월한 행정력과 교육청-학교간 의사소통, 교장의 리더쉽, 의뢰를 원활하게 하는 연계체계와 자원의 존재 등을 꼽았음

-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예방 프로그램
  -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돕는 지정적 접근방법
  -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게 보호요인을 증가시켜주는 집중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선택적인 프로그램
  - 아래의 두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음
  - Coping and Support Training Program(CSTP)
    - 자살위험군으로 선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6주간(12시간) 약 6~7명의 학생이 한 그룹이 되어서 기분조절, 약물남용조절, 학교생활 수행능력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대처기술, 문제해결기술 등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 자살사고나 자살시도 뿐 아니라 우울증, 약물사용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Promoting CARE
    -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주간 교육이 진행
    - 별도로 2시간씩 2차례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와 만나 자살에 대해 교육하고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녀의 치유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시행하여 부모-자녀가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
    - 효과검증 연구를 통하여 자살행동, 우울증, 절망감을 줄이고 대처기술, 자기 효능감, 가족과의 연결과 같은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짐

※ 제한점

- 미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이거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 어떠한 프로그램도 단일 프로그램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독보성이 입증되지 않음
- 실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지는 의문

## 4) 국내의 학교 중심 자살예방교육

### 1. 2000년대 후반부터 학교중심 자살예방사업 시작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의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검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선별도구로는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검사(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AMPQ)를 사용하였다. 2011년 청소년 정서 행동발달검사(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II, AMPQ-II)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학생용 38 문항, 교사용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우울증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5개로, 4개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우울감 및 자살과 관련된 증상들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고, 교사가 우울감에 의해 표현 되는 학생의 모습을 평가한 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전체 문항을 걱정 및 생각, 기분 및 자살, 학습과 인터넷, 친구문제, 규칙위반 및 가해행동 등 5가지 요인들로 나누어, 기분 및 자살을 비롯하여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따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별 후 이를 활용한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 적절한 치료와 연계함으로써 우울 및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검진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AMPQ-II 1차 선별 후,

- 1) 학생 총점의 표준점수가 65점 이상이거나,
- 2) 자살 및 경련문항의 점수가 2점 이상이거나,
- 3) 교사 평정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2차 검진 대상군으로 분류하여 보다 자세하게 평가하게 하였다. 2차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보건센터 또는 전문병·의원으로 치료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 2.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학생자살예방대책

### ① 학생 및 교원대상 자살예방교육을 강화

-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함
- 교육과정 개편 시 생명존중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교원연수에 반영할 것
- 고위험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강화

### ②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학교 내외의 연계 및 관리체계를 구축

-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발견
- 검사결과에 따라 분류된 대상군 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확립하는 것

### ③ 집중관리 우선학교 지정 및 해당 지역 집중지원 방안

-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집중지원을 하는 것
- 지역단위 자살예방 시스템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

### ④ 관계부처와 민간의 협력체계 운영방안

- 민관 합동 TFT를 구성하여 운영
- 관련 민간기관들, 종교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

### 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자살행동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단계별 예방전략 수립
- 사전예방과 사후개입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적용하기]

### ● 적용하기

####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점

- 1) 발달연령에 적합한 교육대상 선정과 교육내용 검증이 이루어졌는가?
- 2) 교육의 질 및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 3) 다양한 대상,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한 포괄적인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가?
- 4) 이러한 예방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선별 시 고려할 점

- 1) 발달연령 별로 적절한 검사도구나 방법의 선정
- 2) 검사목적, 결과, 후속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한 안내 및 교육

### 3) 검사 시행 후 의뢰 및 연계 시 신속하고 지속 도움이 가능한 연계체계 구축

## [마무리하기]

### ● 학습정리

#### 1) 언론기관 대하기

- 언론은 보도 방식에 따라 모방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지만,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관성 있게 언론보도에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와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며 언론기관이 자살예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합니다.

#### 2)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 크게 일반적, 선별적, 지정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적 접근방법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리큘럼기반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 선별적 접근방법은 선별검사나 토론회, 교사 및 교직원을 게이트키퍼로 활용하여 자살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 지정적 접근방법은 자살의 고위험군 학생에게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3) 해외의 학교 중심 자살예방교육

-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 커리큘럼 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선별 및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 국내의 학교 중심 자살예방교육

- 2012년 수립된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학생 및 교원대상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학교 내외로 연계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및 기관이 협력하여 증거기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참고문헌

1.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2012). 청소년정신의학, 시그마프레스, pp 395-402
2. 홍강의(2014).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481-493
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3
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4

5.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2013
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4-2014 (자료검색일 2014.12.09. 출처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3))
7.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통계자료, 이슈페이퍼 2015-M03, 2015
8. OECD, Suicide in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2009
9. Jeon HJ, 우울증과 자살역학연구, J Korean Med Assoc, 2012 Apr;55(4):322-328